

남원 '만인의총' 430년만에 발굴조사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방어 군사·주민 1만여명 묻힌 곳 읍성 북성벽 복원·정비 등 추진



최경식 남원시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만인의총 본무덤이 있던 의총 유지에서 사발굴조사 개토제를 열고 첫 삽을 뜨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방어하던 군사와 주민 1만여명이 묻힌 전북 남원 '만인의총'에 대한 본격적인 사발굴 조사가 묘역 조성 430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근 '개토제(開土祭)'를 시작으로 만인의총 본 무덤인 의총 유지에서 발굴 조사가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인의총의 본 위치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던 의총 유지는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같은 해 이곳을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허술한 묘역의 이장을 검토 지시하며 1964년 현 위치로 이전되면서 사적에서 해제된 역사가 있다.

이후 이장된 현 만인의총은 1973년 전북도기념물에 지정됐고 다시 1981년 국가사적으로 재지정됐다.

이장 당시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총 유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시는 2024년 국가유산청 신규사업 '국가유산경

관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의총 유지를 포함한 남원읍성 중심 경관의 역사성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개토제는 남원향교가 주관하는 고유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선열들의 흔적을 올바르게 찾아내 후대에 그 뜻을 온전히 전하

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의총 유지 사발굴조사를 통해 만인의총이 처음 조성된 위치와 무덤의 세부 정보 등을 파악하고 유구 보존·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바로 앞에 있는 남원읍성 북성벽 복원·정비 사업과 함께 유적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청년 부부에 결혼 비용 100만원

가전 구입·드레스 비용 등 1년 이내 지출...지역상품권 지급

남원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은' 개원과 연계해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남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줘 청년 부부의 안정적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

로, 부부 중 1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출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과 가전·가구 구입비 등이다. 100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홍미선 남원시 기획예산과장은 "남원에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육아수당 초교 입학 전까지 지급

생후 71개월까지 월 20만원

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지난해까지의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부터는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출생아는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스마트폰앱이나 카드와 연동해 충전되는 방식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자치단체 혁신 2년 연속 '우수'

계약 서류 일원화 등 호평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 평가는 행정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군·구 4개 평가군으로 분류해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 체감도 등 10개 지표를 살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국 81개 군부 자치단체 중 14위를 기록한 군은 21위 이상에게 주어지는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기존 10종에 달하던 계약 구비서류를 단 1종의 계약이행 통합서류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방문과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공공 웹 혁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누리집 접근성을 높이는 등 주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한 점까지 더해져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및 AI 대전환(AI) 기반 마련 지표에서 고득점을 올렸다.

혁신 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타 지자체에 고령화 농촌지역의 인력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멘토링 활동, 민·관 협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연계 '우리동네 복지보안관'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스마트팜' 입주할 청년 농부 모집

고창군이 3월 준공 예정인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입주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 4만9775㎡ 규모로 조성됐다. 단동형 2동, 연동형 3동, 스마트형 1동 등 2만800㎡ 규모의 온실 6동이 구축된다.

모집 대상은 18~45세의 청년 농업인 12개팀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이다. 관외 농업인은 공고 마감일까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청

이 가능하다. 선정된 팀에게는 각 1500㎡ 규모의 온실이 배정된다. 수박, 멜론, 딸기, 토마토 등의 작물 특성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 청년 농업인의 재배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민 생활불편 '120만원봉사대'가 갑니다 300개 마을 현장 민원 처리

남원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120만원봉사대'를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이백면 폐촌·효촌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총 150회에 걸쳐 300개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 가는 현장 민원 처리와 이동 빨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입한 '찾아가는 행복 비용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전문 미용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기존의 120만원봉사대 활동 역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된다. 봉사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농기계 등 생활 밀착형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한다.



남원시의 주민 생활불편 해소 '120만원봉사대'의 이동 빨래방.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청소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 속 고충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현장 봉사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라며 "올해도 시민 만족 100%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봉사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 추천하세요

정읍시,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앞장선 공로자를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학술·연구나 문화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현

신적으로 선양해 온 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이다.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하는 후보자 추천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 학교장, 사학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통해할 수 있다.

추천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대상자의 공적 증명 등 관련 서

료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시상식은 5월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59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통해 진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의 시대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데 묵묵히 힘써 온 분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